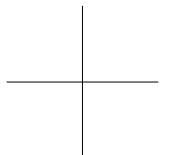


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 실태 분석

박 준 기 부연구위원
황 의 식 연구위원
문 한 필 연구원

KREI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머 리 말

우리 농업은 무역자유화협정(FTA)과 도하개발협상(DDA) 등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농산물시장의 대외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가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농업여건의 변화 속에서 시장의 변화에 대한 적응 정도와 영농규모 등 농가의 특성에 따라 농가 간 소득격차도 최근에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농가경제의 안정화를 위한 많은 연구와 정책들이 제시되었으며, 저소득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대책의 필요성은 많은 경로를 통해 강조되었다. 그러나 농업내외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저소득 수준에 머무른 농가에 대한 정확한 실태 분석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농가경제 원시자료(1998~2003년)를 이용하여 소득계층간 소득 격차 실태를 분석하고, 저소득농가와 고소득농가를 정의한 후 이 농가들의 특성, 농가소득, 소비지출 등 농가경제 실태를 분석한 후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가 저소득농가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농가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를 위해 자료 이용에 협조해 주신 통계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2005.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요 약

- 이 연구는 농가경제 표본농가 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소득 분포 변화를 분석하고, 저소득농가와 고소득농가를 정의한 후 그 특성과 농가 경제실태를 비교·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농가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엔트로피지수를 보면 2000년에 0.2059에서 2003년에는 0.2688로 높아져 농가 간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소득 5분위배율도 같은 기간에 7.6에서 12.3으로 크게 높아져 농가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절대빈곤층 정도를 나타내는 농가 빈곤율은 2003년에 12.4%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저소득농가의 특성 분석결과 경영주 연령 측면에서는 50대 이하의 비교적 젊은 영농층 비중은 고소득농가에 비해 낮은 반면, 60세 이상 고령농가비중이 높으며, 영농규모 측면에서도 저소득층은 1ha 미만의 영세 소농 비중이 41.8%로 고소득농가의 9.5%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형태별로는 미작과 채소농가 비중은 저소득농가가 고소득농가에 비해 높은 반면, 부가가치가 높은 과일과 축산농가 비중은 낮다.
- 저소득농가의 소득실태를 보면, 평균 농가소득 수준은 고소득농가의 12.8%에 머물러 크게 낮은 수준이며, 농업소득 의존도가 가장 낮고, 농외 소득 및 이전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소득농가는 농가소득원 중 농업소득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비를 이루고 있다. 저소득농가의 가계비충족도는 50.5%로 농가소득이 가계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인 반면, 고소득농가는 161.1%로 61.1%의 가계수지 잉여가 발생하고 있다.

- 저소득농가의 부채규모 및 상환능력별 농가분포를 보면, 수익성 창출 부족으로 농가소득이 낮음에도 부채규모는 5천~1억원인 대규모 부채농가 중 54.6%가 위험과 부실수준으로 나타났으며, 1억원 이상 농가 중 90%가 역시 위험 및 부실수준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고액부채 농가의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5년간 동일농가의 소득실태 분석 결과, 4년 이상 장기빈곤을 경험한 농가는 전체의 5.7%를 차지하며, 이 농가의 특징 역시 2ha 이하의 소규모의 영세소농이며, 60세 이상의 고령 농가가 8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빈곤 경험농가의 2002년도 농가경제 실태 분석결과 농업소득보다는 농외소득과 이전수입 의존 비중이 높고, 농가소득의 가계비 충당 정도는 55.5%로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농가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 실태 파악 및 안정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정리하며, 첫째, 저소득농가에 대한 정의와 특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농가의 특성 및 소득수준에 따라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이 차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저소득농가 중 특히 고액부채농가의 농가부채 관리를 위한 경영지도와 자산구조조정 등 제도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An Analysis on Lower-Income Earning Farm Households' Econ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conomic situations and income of lower-income earning farm households with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Data in 1998~2003.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cross-section data in 2003 and the panel data of 2,348 identified farm households during 1998~2002.

Lower-income earning farm household can be defined as the farm household whose income is below 120%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annually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In contrast, the high-income group is the top class among the 5 divided income brackets. According to the above definition, nearly 15% of whole farm households are classified into the low-income earning households in 2003.

In order to understand the cause of low income, we categorize the farm households with the farm size, the age of farm manager and farming type, and also divide income and expenditure by means of origin and use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low-income farm households' economy mainly depends on non-farm income and transfer receipts rather than farm income in contrast to the high-income class. Second, the low-income households' average income is about half of their consumption expenditures. Conversely the high-income farm households' income is 1.6 times more than their expenditures.

Third, among the low-income farm households, some households that are managed by relatively young farmers and have over-average farming size must be motivated to increase profitability by systematic farming scheme and usage of accurate informations. On the other hand, the other households that are managed by elderly farmers and have below-average farming size must be subsidized with public aids and induced to retire from farming, which can accelerate the enlargement of farming size.

Finally, the analysis of panel data show that the rate of farm households which experienced lower-income situation over 4 years during 1998~2002 come

to 5.7%. About 67% of these households have a small farming size below 1ha and 86% of them are managed by elderly farmer over 60 years old. Besides, during above 5 years, 2.3% of the whole farm households have been in the lower-income group every time.

Researchers: Joon-Kee Park, Eui-Sik Hwang and Han-Pil Moon
E-mail: jkpark@krei.re.kr

KREI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 추진체계	2
3. 연구자료 및 방법	3
제2장 농가소득 분포	5
1. 농가 간 소득격차 실태	5
2. 농가 특성별 소득 분포	10
3. 농가의 빈곤율 실태	13
제3장 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 실태	16
1. 저소득농가의 정의	16
2. 저소득농가의 특성	19
3. 농가수지 적자 농가의 농가경제 실태	22
4. 저소득농가의 소득 실태	24
5. 저소득농가의 소비 실태	30
6. 저소득농가의 농가부채 실태	36
제4장 저소득층 유지 농가의 농가경제 실태	40
1. 농가의 소득계층간 이동 실태	40
2. 장기빈곤 경험 농가의 특성	42
3. 장기빈곤 경험 농가의 농가경제 실태	43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46
참고 문헌	50

표 차 례

제2장

표 2- 1. 농가경제 표본농가의 특성	6
표 2- 2. 농가소득 원천별 불평등도(엔트로피지수) 추이	10
표 2- 3. 소득계층별 농가소득현황	10
표 2- 4. 영농규모별 농가소득 격차	11
표 2- 5. 경영주 연령 및 영농규모별 소득원 비중	12
표 2- 6. 경영주 연령 및 영농규모별 농가소득	12
표 2- 7. 연도별 최저생계비 내역	14
표 2- 8. 연도별 농가 빈곤농가 비중	15

제3장

표 3- 1. 소득분위별 저소득농가 현황	18
표 3- 2. 농가 가구원수 및 소득수준별 농가분포	19
표 3- 3. 소득계층간 농가 특성 비교	20
표 3- 4. 저소득농가의 특성별 분포	21
표 3- 5. 농가수지 적자 농가의 특성별 분포	22
표 3- 6. 농가수지 적자 농가의 경영주 연령별 농가경제 지표	23
표 3- 7. 농가수지 적자 농가의 영농규모별 농가경제 지표	23
표 3- 8. 소득계층간 농가소득원 비교	25
표 3- 9. 저소득농가의 소득원 구성비	27
표 3-10. 소득계층간 이전수입 구성내역 비교	28
표 3-11. 저소득농가의 공적보조 내역	29
표 3-12. 농가의 가계수지 실태	30
표 3-13. 저소득농가의 농가소득 대비 가계비 지출 실태	30

표 3-14. 농가소득 대비 가계비 지출 실태	31
표 3-15. 소득계층간 가계비충족도 비교	31
표 3-16. 저소득농가의 특성별 가계비충족도 실태	32
표 3-17. 소득계층간 소비실태 비교	33
표 3-18. 저소득농가의 경영주 연령별 소비실태	33
표 3-19.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실태 분석	34
표 3-20. 취학자녀 보유 저소득농가의 소비실태	35
표 3-21. 소득계층간 부채 규모별 농가분포	36
표 3-22. 저소득농가의 영농규모 및 부채규모별 농가 분포	37
표 3-23. 소득계층간 부채상환능력 비교	38
표 3-24. 저소득농가의 부채규모 및 상환능력별 농가분포	38

제4장

표 4- 1. 소득 5분위 이행행열(1998, 2002)	41
표 4- 2. 최저생계비 기준 이행행열(1998, 2002)	41
표 4- 3. 반복빈곤 경험농가 분포(1998, 2002)	42
표 4- 4. 향상빈곤 농가의 경영주 연령 및 영농형태	43
표 4- 5. 장기빈곤 경험농가의 경영주 연령 및 영농형태	43
표 4- 6. 장기빈곤 경험농가의 경영주 연령별 농가경제 실태	44
표 4- 7. 장기빈곤 경험농가의 영농규모별 농가경제 실태	45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3
------------------------	---

제2장

그림 2-1. 농가소득원별 엔트로피지수 추이	9
그림 2-2. 빈곤율 변화 추이	15

제3장

그림 3-1. 소득계층간 농가 분석 흐름도	17
그림 3-2. 소득계층간 경영주연령별 가계비충족도 비교	25
그림 3-3. 저소득농가의 영농규모별 공적보조 구성 내역	29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 농가의 고령화와 규모화로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도농간뿐만 아니라 농가 간 소득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농가의 소득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소규모의 영세한 고령농가는 소득 수준이 낮아 농가소득으로 가계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 앞으로도 농업부문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며, 영농 규모화 등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이로 인해 농가 간 소득격차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농업여건의 변화 속에서 규모화와 경쟁력을 갖춘 농가는 수익성 제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해 나아갈 수 있으나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농가들은 지금까지보다 더 큰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소농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농업부문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저소득농가의 비중, 특성 및 농가경제 실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후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그럼에도 지금까지 농가단위의 연구는 주로 평균적 농가를 대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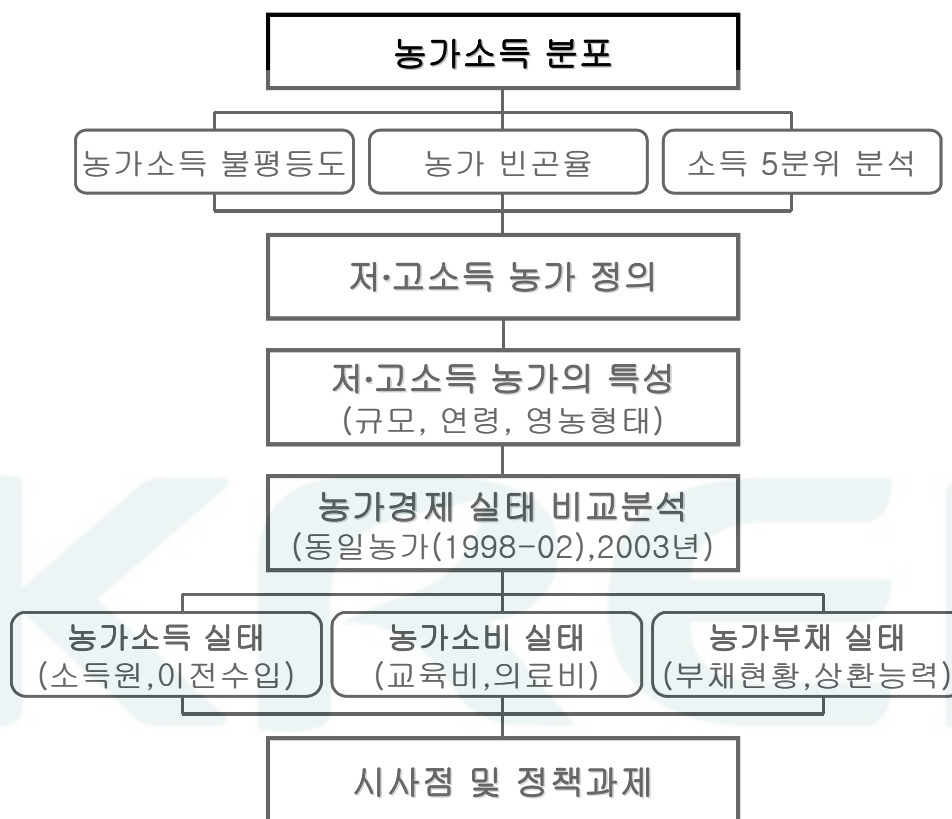
농가소득 및 농가부채 중심의 농가경제 실태 파악에 집중하였으며, 저소득 농가에 초점을 두고 특성과 농가경제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 연구는 농가경제 표본농가 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소득 분포 변화를 분석하고, 저소득농가의 비중과 특성을 파악하며, 저소득농가의 농가소득, 소비지출, 농가부채 분석 등을 실시하여 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 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저소득농가에 대한 정확한 농가경제 실태 파악 및 향후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추진체계

- 이 연구는 1998~2003년의 농가경제 표본농가 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소득 분포를 분석하고, 저소득농가와 고소득농가를 정의하여 구분한 후 그 특성과 농가소득, 소비실태를 비교·분석하며, 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 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이와 같은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를 추진하였다.
 - 첫째, 최근 6년간(1998-2003)의 농가경제 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소득의 불평등도, 빈곤율, 상대적 소득 격차 분석
 - 둘째, 저소득농가와 고소득농가 정의
 - 셋째, 저소득농가와 고소득농가의 특성 파악
 - 넷째, 소득계층간 농가경제 실태 비교·분석
 - 다섯째, 동일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계층간 이동 실태와 장기빈곤 경험 농가 특성 분석
 - 여섯째, 분석 결과를 기초로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제시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3. 연구자료 및 방법

- 분석 자료는 통계청의 농가경제 표본농가 조사 원시자료(1998~2003)를 이용하였다. 저소득농가와 고소득농가의 소득 및 소비실태 비교·분석은 2003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1998~2002년 자료는 5개년 간 동일 표본농가(2,348)를 대상으로 소득계층 이행실태, 장기빈곤 경험농가의 농가 특성 및 농가경제 현황을 분석하는데 활용하였다.
- 농가소득 분포 분석지표로는 엔트로피 지수와 소득 5분위 분석을 실시

하여 최근 6년간의 농가소득 불평등도 변화 추이와 상대적 빈곤수준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농가의 빈곤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발표되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에 속하는 가구가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파악하였다.

- 농가의 소득계층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그 이하 농가를 절대빈곤층, 절대빈곤층 $\times 1.2$ 를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이하를 ‘저소득농가’로 정의하였고, 소득 5분위 중 상위 20% 농가를 고소득농가로 정의하여 구분하였다. 소득계층간 농가특성 및 농가경제 실태에 대한 비교·분석은 정의에 의하여 구분된 저소득농가와 고소득농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 또한 장기빈곤 경험농가 분석을 위하여 동일 표본농가의 5개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5분위 및 최저생계비 기준 소득계층을 구분한 후 기준연도와 비교연도 간의 이행행열 분석을 실시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 2 장

농가소득 분포

1. 농가 간 소득격차 실태

1.1. 분석 대상 농가의 특성

- 이 연구의 분석대상 농가는 통계청에서 농가경제 실태조사를 위해 최근 6년간 표본으로 선정된 3,040여 농가이다. 분석대상 농가의 특성은 크게 경영주 연령, 영농형태, 표준영농규모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먼저 경영주 연령별 농가 구성을 보면, 60세 이상 농가 비중은 1998년에는 41.0%였으나 2003년에는 51.1%로 10% 포인트 늘어났으며, 40대 이하의 비교적 젊은 경영주 비중은 같은 기간에 29.1%에서 14.7%로 14.4% 포인트나 크게 감소하여 농가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 영농형태를 보면, 미곡 재배 농가 비중이 1998년에 53.4%였으나 2003년에는 45.9%로 줄어든 반면, 채소 재배농가는 20.5%에서 24.5%로 비중이 높아졌으며, 축산농가 비중도 6.0%에서 10.9%로 4.9% 포인트 높아져 경

표 2-1. 농가경제 표본농가의 특성

단위 : %(가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경영주 연령	40세미만	7.4	9.0	8.2	7.1	6.0	5.3
	40~49	21.7	21.6	20.4	20.0	20.0	19.4
	50~59	29.8	29.7	30.0	28.1	26.6	24.1
	60~69	32.7	31.5	32.2	33.8	34.8	36.2
	70세이상	8.3	8.2	9.3	11.0	12.5	14.9
영농형태	미곡	53.4	53.9	54.4	55.5	51.8	45.9
	채소	20.5	20.5	18.7	19.0	19.5	24.5
	과일	11.2	11.6	11.7	11.4	12.1	10.6
	축산	6.0	5.8	6.5	5.4	8.3	10.9
	기타	8.8	8.2	8.7	8.8	8.2	8.1
표준 영농규모	1ha미만	36.8	36.0	36.5	36.5	36.5	24.0
	1~2ha	34.8	34.2	33.7	32.4	32.5	35.1
	2~3ha	16.1	16.6	16.6	16.3	15.6	18.8
	3~5ha	9.8	10.4	10.8	11.0	11.5	14.4
	5ha초과	2.5	2.8	3.5	3.7	4.0	7.7
전체		100.0 (3,012)	100.0 (3,026)	100.0 (3,026)	100.0 (3,039)	100.0 (3,080)	100.0 (3,042)

제작물 위주로 영농형태가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또한 표본농가들이 미작, 채소, 과수, 축산 등 다양한 영농형태를 갖고 있으므로 단지 경지규모만으로는 농가 간 영농규모를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표준영농규모(SSF : Standardized Size of Farming) 개념을 활용하여 농가 간 영농규모를 구분하였다.¹⁾ 표준영농규모(이하 영농규모)란 시설농업의 발달로 농업용 고정자산의 규모도 경영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경영규모를 단순히 경지면적만으로 고려하

1) 황의식·문한필(2003, pp.41~42) 참조

지 않고 농업용 고정자산을 경영규모로 환산하여 포함시킨 개념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SSF = L_C + \frac{FA}{L_P}$$

L_C : 경작면적

FA : 농업용 고정자산

L_P : 농지의 수익가격(평당 25,000원)

- 영농규모별 농가 특성을 보면, 1ha 미만의 영세소농 비중이 1998년에 36.8%에서 2003년에는 24.0%로 줄어든 반면, 5ha를 초과하는 대규모 농가비중은 같은 기간에 2.5%에서 7.7%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2003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는 2ha 미만의 소규모 농가 비중이 전체의 59.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농가소득 불평등도

- 소득불평등도 측정 지표로 일반적 엔트로피(Generalized Entropy: GE) 계열의 지표를 이용하였다. GE 계열의 지표의 일반적 함수형태는 (식 1)와 같으며, 여기서 $\alpha=0$ 인 경우 l'Hopital의 정리를 사용하면 (식 3)과 같이 대수편차평균(MLD)과 동일하게 된다.²
- 대수편차평균(Mean Log Deviation: MLD) 지표는 가구 소득이 일반적으로 로그 정규분포 하는 특징을 반영하여 (식 2)와 같이 자연대수로 전환된 소득에 대하여 그 편차를 평균한 수치로 정의할 수 있다. (식 2)에서 측정된 대수편차평균은 소득분배가 완전하게 평등한 경우 최저치가 0이 된다.

2) GE 함수에서 주로 사용되는 α 값은 0, 1, 2이다. $\alpha=0$ 이면 저소득 계층의 소득변화에 보다 큰 비중이 주어지고, $\alpha=1$ 이면 모든 소득분포에 고르게 비중이 주어지며, $\alpha=2$ 이면 고소득 계층의 소득변화에 더 큰 비중이 주어짐을 의미한다.

$$GE(\alpha) = \frac{1}{\alpha^2 - \alpha} \left[\frac{1}{n} \sum_{i=1}^n \left(\frac{y_i}{\mu} \right)^\alpha - 1 \right] \quad (\text{식 1})$$

$$MLD = \frac{\sum_i \ln\left(\frac{\mu}{y_i}\right)}{n} = \ln \mu - \frac{1}{n} \sum_i \ln y_i \quad (\text{식 2})$$

$$GE(0) = \frac{1}{n} \sum_{i=1}^n \log \frac{\mu}{y_i} = MLD \quad (\text{식 3})$$

- 연령, 규모 및 영농형태 등 농가구성의 변화와 농산물 시장의 경쟁심화 등으로 인해 농가소득 불안정 문제와 함께 농가 간 소득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확대는 한편으로는 기술적 차이에 의한 기술진보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농가 간 상대적 상실감 확대와 이로 인한 노동력 이탈 등 농촌의 사회·경제적 불안정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
- 농가 간 소득격차 분석지표인 엔트로피지수의 변화를 보면, 농가소득의 엔트로피지수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 0.2145에서 2000년에 0.2059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이후 다시 악화되어 2003년에는 0.2688로 높아졌다. 즉, 농가 간 농가소득 불평등 정도는 2000년 이후 최근으로 올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농가소득원인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불평등도 추세도 농가소득의 불평등도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농가소득의 불평등 확대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불평등 확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전수입은 2001년부터 불평등도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의 직접지불제 확대 등으로 공적보조 수준이 늘어나 농가 간 편차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소득 5분위별 소득 점유율과 상대적 소득변화 분석결과, 첫째, 하위 20%의 저위 소득층의 농가소득은 1998년 이후 연평균 2.0%씩 하락한 반면, 중위소득계층 이상은 농가소득이 상승하였으며, 특히 상위 20%의 고위소득계층은 연평균 7.4%씩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 상위계층의 소득은 늘어나 소득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
- 이와 같은 소득격차 확대는 소득 5분위 배율(V분위 계층의 평균소득/I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1998년에는 7.2였으나 2000년에는 7.6으로 확대되었으며, 이후 계속 높아져 2003년에는 12.3으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농가 간에도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간에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계층의 농가소득의 최근으로 올수록 다른 계층에 비해 더욱 악화되어 소득계층간 불평등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1. 농가소득원별 엔트로피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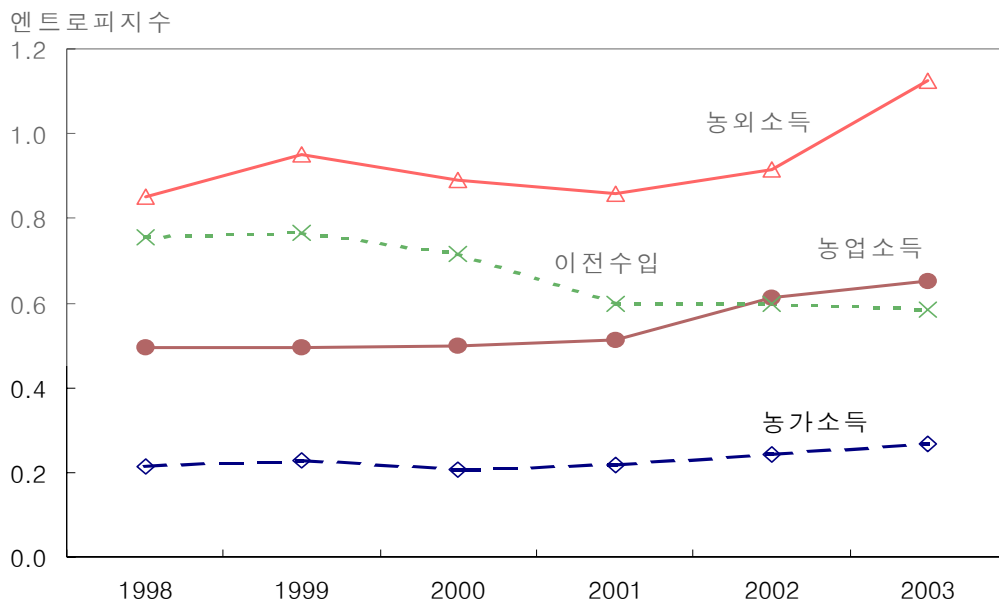


표 2-2. 농가소득 원천별 불평등도(엔트로피지수) 추이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수입
1998	0.2145	0.4956	0.8525	0.7560
1999	0.2286	0.4949	0.9525	0.7640
2000	0.2059	0.4987	0.8891	0.7160
2001	0.2184	0.5126	0.8574	0.5987
2002	0.2429	0.6122	0.9158	0.5995
2003	0.2688	0.6524	1.1270	0.5845

표 2-3. 소득계층별 농가소득현황

단위 : 천원,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연평균 증감율
I (A)	5,886	5,819	5,999	5,854	5,503	5,035	-2.0
II	12,373	12,954	13,540	13,304	13,069	15,019	4.1
III	17,807	18,829	19,542	19,471	19,027	22,449	4.7
IV	24,697	26,546	27,010	27,455	27,468	32,558	5.6
V (B)	42,526	46,337	45,767	46,834	49,070	62,173	7.4
V분위 배율(B/A)	7.2	8.0	7.6	8.0	8.9	12.3	-

2. 농가 특성별 소득 분포

- 영농규모별로도 농가 간 소득증가율 폭의 차이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1.0ha 미만의 2003년 농가소득은 1998년 대비 16% 상승하는데 그 친 반면, 5ha 이상 농가는 22.4%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2ha 미만 농가의 소득수준은 전체 농가 평균 소득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5ha 이상 농가의 소득수준은 전체 농가평균 소득의 1.7배로 높은 소득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은 소득격차의 확대는 농가 간 소득계층 분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농가의 소득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 규모화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경영주 연령 및 영농규모별 농가소득을 보면, 같은 연령층이라 하더라도 영농규모에 따라 상당 수준의 소득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5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경영규모별로 고소득 대비 저소득의 차이가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규모별 고소득 대비 저소득의 차이는 40대가 가장 높은 3배였으며, 다음으로 50대가 2.4배, 40대 미만은 2.2배의 순으로 나타났다.
- 경영주 연령 및 영농규모별 농가소득원 구성을 보면, 영농규모가 작을수록 근로소득 위주의 농외소득 의존비중이 높고, 70대는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이전수입 의존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ha 미만 농가는 전반적으로 농외소득 의존비중이 높으며, 특히 40대 미만의 젊은 계층일수록 3ha 미만 규모까지도 농외소득 비중이 높다. 따라서 영농규모가 적고 젊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외소득 증대 정책이 농가 간 소득격차 해소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2.0ha 이상의 농가는 모든 연령 계층에서 농업소득 비중이 높으므로 이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농가 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 바람직할 것이다.

표 2-4. 영농규모별 농가소득 격차

단위 : 천원, (%)

	1ha 미만	1~2ha	2~3ha	3~5ha	5.0ha 이상	평 균
1998	16,335 (100.0)	19,708 (100.0)	23,943 (100.0)	28,879 (100.0)	39,010 (100.0)	20,494 (100.0)
2000	17,478 (107.0)	20,905 (106.1)	26,363 (110.1)	32,657 (113.1)	35,433 (90.8)	23,072 (112.5)
2003	18,956 (116.0)	23,917 (121.4)	31,144 (130.1)	34,492 (119.4)	47,743 (122.4)	26,878 (131.1)

표 2-5. 경영주 연령 및 영농규모별 소득원 비중

단위 : %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평균
1ha미만	농업소득	36.0	27.1	17.0	26.8	21.7	24.4
	농외소득	46.7	58.0	62.2	38.5	29.0	46.1
	이전소득	17.2	14.8	20.8	34.7	49.3	29.4
1~2ha	농업소득	32.2	28.6	33.8	37.7	33.7	34.3
	농외소득	41.2	52.3	48.3	26.8	22.9	37.4
	이전소득	26.7	19.0	17.8	35.5	43.4	28.3
2~3ha	농업소득	26.8	48.5	41.1	50.1	44.5	45.1
	농외소득	53.3	37.4	39.3	22.2	22.0	33.0
	이전소득	20.0	14.1	19.6	27.8	33.4	21.9
3~5ha	농업소득	55.3	58.0	50.9	44.4	38.6	50.8
	농외소득	32.2	27.1	30.7	26.4	8.3	27.9
	이전소득	12.5	14.9	18.5	29.2	53.1	21.3
5ha이상	농업소득	67.6	71.0	56.1	43.4	33.4	59.2
	농외소득	11.8	16.8	32.2	28.8	22.1	24.4
	이전소득	20.6	12.2	11.6	27.8	44.5	16.4

표 2-6. 경영주 연령 및 영농규모별 농가소득

단위 : 천원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1ha 미만	25,121	21,285	22,586	19,077	13,089
1~2ha	24,717	27,227	29,147	23,009	15,999
2~3ha	26,410	32,499	36,218	29,688	22,048
3~5ha	33,209	36,279	40,704	29,625	20,633
5ha 초과	54,155	64,065	54,623	34,084	11,659

3. 농가의 빈곤율 실태

- 농가의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눌 수 있으며, 소득중심의 빈곤실태와 소비 중심의 빈곤실태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저생계비를 빈곤선(poverty line)으로 하여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절대적 빈곤 실태를 파악하였다.
- 빈곤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빈곤율(Head-Count Ratio)은 주어진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수가 전체 농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식은 아래와 같다.³

$$HR(x, \pi) = \frac{\text{빈곤선 이하 소득농가수}(q)}{\text{전체 농가수}(n)}$$

x : 농가소득, π : 빈곤선

- 절대빈곤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는 1999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매년 발표되는데 2003년 기준 1인가구당 월 355,774 원, 6인가구는 월 1,307,904원으로 책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1998년의 경우 1999년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저자가 추정하였다. 또한 가구원수가 6인 이상 농가의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선형회귀분석으로 추정한 후 7~1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추정하여 적용하였다.⁴ 2003년의 추정식을 예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 빈곤율은 head-count ratio를 우리말로 표기한 것으로 빈곤 측정단위가 가구일 경우 빈곤가구율, 그리고 빈곤측정단위가 개인일 경우 빈곤인구율로 표기하여 측정단위의 차이에 의한 혼동을 피할 수 있다.

4)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한 가구원수당 최저생계비 연장 접근방법은 유경준, 심상달 (2004)의 p.46을 참조하였다.

$$\begin{aligned} \text{빈곤선} &= 69395.89 + (244219.6 \times \text{가구원수}) - (11485.75 \times \text{가구원수}^2) \\ &\quad (1602.5) \quad (11458.9) \quad (17515.2) \\ R^2 &= 0.999 \end{aligned}$$

- 위 식에서 ()의 숫자는 표준오차로 모든 추정계수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정치의 R^2 는 0.999로 거의 완벽한 합치를 보이고 있다.
- 농가의 빈곤율 분석결과 1998년에는 외환위기에 따른 농가경제 침체로 절대빈곤층 농가가 늘어나면서 빈곤율이 14.3%로 다른 해에 비해 높았으나 이후 농가경제가 호전되면서 점차 낮아져 2001년에는 11.8%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부문의 수익성 저하와 고령화 등으로 경쟁력이 낮아진 농가가 늘어나면서 다소 높아져 2003년의 농가 빈곤율은 12.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연도별 최저생계비 내역

단위 : 원

가구원수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	305,411	314,574	324,011	333,731	345,412	355,774
2	505,810	520,984	536,614	552,712	572,058	589,219
3	695,707	716,579	738,076	760,218	786,827	810,431
4	875,104	901,357	928,398	956,250	989,719	1,019,411
5	994,993	1,024,843	1,055,588	1,087,256	1,125,311	1,159,070
6	1,122,758	1,156,441	1,191,134	1,226,868	1,269,809	1,307,904
7	1,216,131	1,252,615	1,290,194	1,328,900	1,375,412	1,416,675
8	1,288,065	1,326,707	1,366,508	1,407,503	1,456,766	1,500,471
9	1,337,027	1,377,138	1,418,452	1,461,005	1,512,140	1,557,507
10	1,363,017	1,403,908	1,446,025	1,489,406	1,541,533	1,587,784
11	1,366,036	1,407,017	1,449,228	1,492,704	1,544,947	1,591,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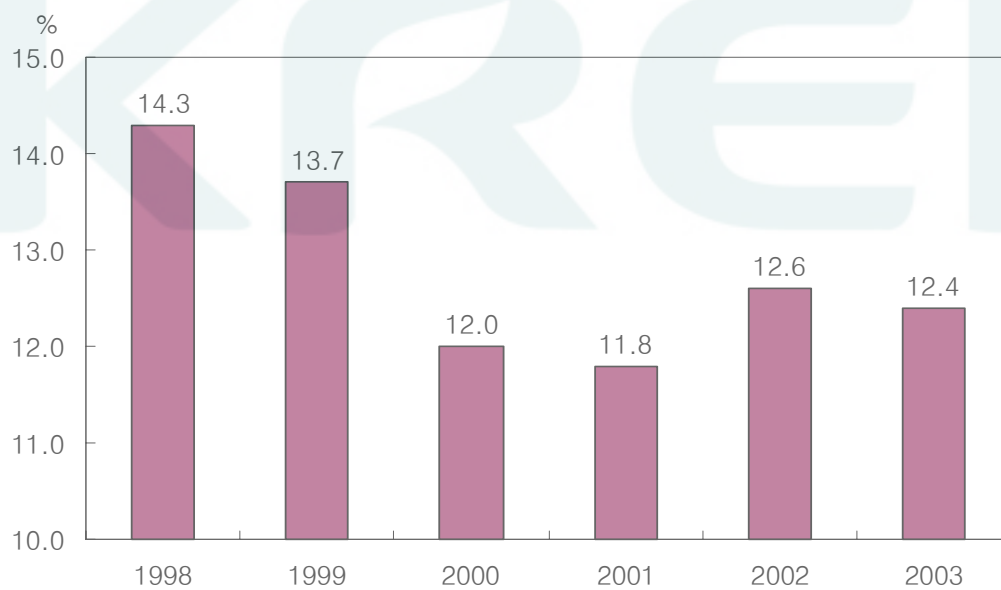
주 : 1998년 최저생계비는 1999년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저자가 추정함.

표 2-8. 연도별 농가 빈곤농가 비중

단위 : %

	빈곤농가	비빈곤농가	전 체
1998	14.3	85.7	100.0
1999	13.7	86.3	100.0
2000	12.0	88.0	100.0
2001	11.8	88.2	100.0
2002	12.6	87.4	100.0
2003	12.4	87.6	100.0

그림 2-2. 빈곤율 변화 추이



제 3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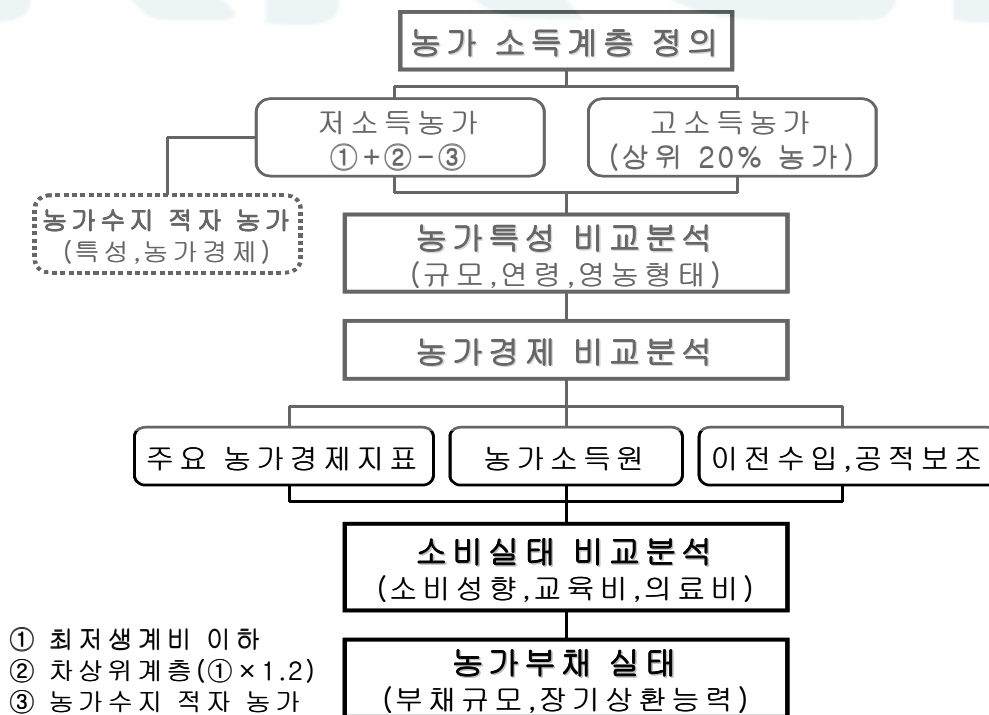
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 실태

1. 저소득농가의 정의

- 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 실태 분석을 위해서는 어떤 농가를 ‘저소득농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농가 소득계층간 비교·분석 연구는 소득 5분위 분석을 통해 소득계층을 구분한 후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계층에 대하여 저소득농가와 고소득농가로 구분한 후 상대적 소득 차이를 분석하는 방식이었다.
-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상대적 소득격차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이를 저소득농가로 정의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리가 있다. 즉, 연도별로 농가경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비록 낮은(혹은 높은) 소득 분위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절대적 기준의 저소득(혹은 고소득) 농가로 구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하위 20%를 초과하는 농가라 하더라도 농가 가구원수에 따라 최저생계를 위해 필요한 소득 규모는 다를 수 있는데 소득 5분위 분석방법은 가구원수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비교하기 때문에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수준 파악에 한계가 있다.

- 이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를 절대적 빈곤선으로 채택하였다. 즉, 농가의 가구원수를 고려한 연도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절대빈곤층 농가로 구분하였으며,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1.2)까지를 ‘저소득층 농가’로 정의하였다. 한편 저소득층과 비교 대상이 되는 ‘고소득농가’는 소득 5분위 중 상위 20%에 속하는 농가로 정의하였다.
- 이와 같은 정의에 의해 구분된 저소득농가와 고소득농가를 대상으로 첫째, 영농규모, 경영주연령, 영농형태 등 농가의 특성을 분석하여 어떤 농가들이 저소득 혹은 고소득농가에 속해 있는지를 파악하고, 둘째, 소득계층별 농가소득원, 소비지출, 농가부채 등 주요 농가경제지표 분석을 실시하며, 셋째, 그 결과를 토대로 소득계층간 농가경제 실태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림 3-1. 소득계층간 농가 분석 흐름도



- 한편 농가는 도시근로자가구와 달리 농업인이면서 사업체적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인 농가수지 적자농가가 존재한다. 이러한 농가들은 당해연도에 영농에 신규 진입하여 초기 투자비만 발생했을 뿐 투자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영농실패로 인하여 농가수지 적자를 기록한 농가들이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농가수지 적자 농가를 분석대상으로 포함시킬 경우 저소득층의 농가경제 실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이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들을 별도로 구분하여 농가의 특성과 주요 농가경제 지표분석을 실시하였다.
- 2003년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은 12.4%인데 이 중에서 농가수지 적자농가를 제외한 절대빈곤층 비중은 9.8%이며, 차상위계층 비중은 5.1%로 나타났다. 따라서 절대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을 더한 ‘저소득농가’ 비중은 전체 농가의 14.9%이다.⁵⁾
- 이를 소득 5분위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소득 I분위에 속하는 농가 중에서는 농가수지 적자농가를 제외한 529농가 중 70.1%가 저소득농가로 분류되었으며, 29.9%의 농가는 저소득층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I분위에 속하는 농가 중에서는 13.0%가 저소득농가이며, III분위의 0.3% 농가가 저소득농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소득분위별 저소득농가 현황

단위 : 농가수(%)

	I	II	III	IV	V	전 체
농가소득 (-)농가	80(13.1)	0(0.0)	0(0.0)	0(0.0)	0(0.0)	80 (2.6)
절대빈곤층	272(44.7)	26(4.3)	0(0.0)	0(0.0)	0(0.0)	298 (9.8)
차상위계층	99(16.3)	53(8.7)	2(0.3)	0(0.0)	0(0.0)	154 (5.1)
차상위계층초과	158(25.9)	529(87.0)	607(99.7)	608(100.0)	608(100.0)	2,510(82.5)
전 체	609(100.0)	608(100.0)	609(100.0)	608(100.0)	608(100.0)	3,042(100.0)

5) 이후 분석에서는 농가소득 (-)인 농가수지 적자농가 80호를 제외하였다.

표 3-2. 농가 가구원수 및 소득수준별 농가분포

단위 : %(농가수)

	가 구 원 수							전 체
	2	3	4	5	6	7	8이상	
농가소득 (-)	37.5	16.3	16.3	18.8	10.0	0.0	1.3	100.0(80)
절대빈곤층	42.3	21.8	17.1	10.1	7.0	1.0	0.7	100.0(298)
차상위계층	50.6	16.2	13.0	11.7	5.8	1.9	0.6	100.0(154)
차상위계층초과	43.5	22.4	16.0	9.7	5.8	1.9	0.6	100.0(2,510)
전 체	43.6 (1,327)	21.9 (665)	16.0 (486)	10.1 (307)	6.0 (184)	1.8 (54)	0.6 (19)	100.0(3,042)

- 농가 가구원수별 농가분포를 보면 가구원이 1인인 단독가구는 조사대상 표본농가에서 제외되었으며, 2인 가구가 43.6%, 3인 가구가 21.9%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계층에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농가수지 적자 농가의 경우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3인 이상 가구원수를 보유한 농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저소득농가의 특성

- 저소득농가와 고소득농가 간의 농가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경영주 연령 측면에서는 40대 이하 연령층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11.6%, 50대는 11.2%가 적은 반면, 60대는 10.3%, 70대는 12.7%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농가가 고령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영농규모는 1ha 미만 농가 비중이 저소득층은 41.8%인 반면, 고소득층은 9.5%에 불과하였으며, 1~2ha의 소규모 농가비중도 저소득층이

10.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5ha 농가 비중은 저소득층이 16.4% 낮고, 5ha 이상 대규모 농가 비중은 12.8%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영농규모 측면에서도 저소득층은 소규모 영세농 비중이 높고, 고소득층은 규모화된 대규모 농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영농형태별로는 미작과 채소농가 비중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각각 8.4%와 5.6%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과일과 축산농가 비중은 6.3%와 11.2%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산농가 비중은 저소득층이 6.9%인 반면, 고소득층은 18.1%로 2.6배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3. 소득계층간 농가 특성 비교

단위 : %(농가수)

		저소득농가	고소득농가	A-B
경영주연령	40세 미만	5.2	5.4	-0.2
	40~49세	18.8	30.4	-11.6
	50~59세	24.3	35.5	-11.2
	60~69세	36.5	26.2	10.3
	70세 이상	15.2	2.5	12.7
표준영농규모	1ha미만	41.8	9.5	32.3
	1~2ha	35.4	25.0	10.4
	2~3ha	10.2	23.7	-13.5
	3~5ha	7.1	23.5	-16.4
	5ha이상	5.5	18.3	-12.8
영농형태	미 작	44.9	36.5	8.4
	채 소	28.1	22.5	5.6
	과 일	8.0	14.3	-6.3
	축 산	6.9	18.1	-11.2
	기 타	12.2	8.6	3.6
전 체		100.0 (452)	100.0 (608)	-

- 저소득농가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농가 중 77.2%가 2ha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60세 이상 농가의 비중은 43.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경영주 연령이 60세 이상 이면서 경영규모가 영세한 농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영주 연령이 낮더라도 영농규모가 영세한 농가일수록 저소득농가 비중이 높아 영농규모화와 농가소득 간에 상관관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 영농형태별로 보면, 저소득농가 중 미작 농가의 비중이 44.9%로 가장 높고, 다음은 채소농가로 28.1%를 차지하고 있어서 미작과 채소 재배 농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농가의 비중이 높아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고령화된 미작 및 채소농가가 저소득농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4. 저소득농가의 특성별 분포

단위 : %(농가수)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전 체
1ha미만	2.2	7.3	6.6	11.7	13.9	41.8(189)
1~2ha	2.7	7.5	7.1	10.0	8.2	35.4(160)
2~3ha	1.8	2.9	2.2	1.8	1.5	10.2(46)
3~5ha	0.2	2.9	1.8	1.8	0.4	7.1(32)
5ha이상	0.4	0.9	0.9	1.1	2.2	5.5(25)
미 작	1.8	8.0	7.5	13.7	13.9	44.9(203)
채 소	2.0	7.7	6.0	5.3	7.1	28.1(127)
과 일	0.7	1.5	1.8	2.4	1.5	8.0(36)
축 산	0.9	1.3	1.5	2.0	1.1	6.9(31)
기 타	2.0	2.9	1.8	2.9	2.7	12.2(55)
전 체	7.3 (33)	21.5 (97)	18.6 (84)	26.3 (119)	26.3 (119)	100.0(452)

3. 농가수지 적자 농가의 농가경제 실태

3.1. 농가의 특성

- 농가수지 적자농가는 신규진입이나 영농실패 등 일시적 현상으로 소득계층간 농가실태 분석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소득이 (-)인 농가수지 적자농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 농가들만을 대상으로 특성과 농가경제 주요지표를 분석하였다.
- 농가수지 적자 농가는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경영주 연령별로는 40대가 4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ha 이상의 비교적 영농규모가 큰 농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은 대규모 농가의 경우 농업소득 의존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규진입에 따른 투자에 비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영농실패로 농업소득이 (-)를 나타내 영농수지 적자를 기록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한편 60세 이상의 고령농가 중에서는 주로 1~2ha의 소규모 농가 중에

표 3-5. 농가수지 적자 농가의 특성별 분포

단위 : %(농가수)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전체
1ha미만	1.3	3.8	6.3	2.5	1.3	15.0(12)
1~2ha	3.8	8.8	1.3	11.3	1.3	26.3(21)
2~3ha	3.8	11.3	3.8	6.3	2.5	27.5(22)
3~5ha	1.3	13.8	1.3	2.5	0.0	18.8(15)
5ha이상	1.3	3.8	5.0	2.5	0.0	12.5(10)
전체	11.3 (9)	41.3 (33)	17.5 (14)	25.0 (20)	5.0 (4)	100.0(80)

서 농가수지 적자를 기록한 비중이 높았다. 이 농가들은 고령화로 겸업 소득 및 근로소득 기회를 얻는데 한계가 있어서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영농실패로 영농수지 적자를 기록할 경우 농가소득 하락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2. 농가경제 실태

- 농가소득원 내역을 보면 전체 연령층에서 농가수지 적자로 나타나 영농수지 적자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농가의 농업소득은 -967만원인 반면, 40대 미만 농가는 -4,691만원으로 나타나 그 차이가 4.8배로 젊은 농가일수록 영농수지 적자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6. 농가수지 적자 농가의 경영주 연령별 농가경제 지표

단위 : 만원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전 체
농가소득	-3,577	-2,664	-1,506	-1,530	-318	-2,163
농업소득	-4,691	-3,003	-2,179	-1,500	-967	-2,571
농외소득	721	107	503	-318	95	139
이전수입	393	233	169	288	554	269
가 계 비	1,983	2,768	2,795	2,757	1,070	2,597
농가부채	4,507	11,665	7,773	2,201	1,350	7,297

표 3-7. 농가수지 적자 농가의 영농규모별 농가경제 지표

단위 : 만원

	1ha미만	1~2ha	2~3ha	3~5ha	5ha이상	전 체
농가소득	-3,050	-1,174	-1,860	-3,096	-2,443	-2,163
농업소득	-3,768	-1,359	-2,049	-3,759	-3,048	-2,571
농외소득	517	-29	-127	371	272	139
이전수입	201	213	316	292	332	269
가 계 비	1,589	1,682	3,296	2,959	3,645	2,597
농가부채	2,217	3,585	8,877	9,931	13,757	7,297

- 농가부채는 젊은 농가일수록 높으며, 특히 영농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40~50대의 농가부채 규모가 영농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7,773만원~1억 1,665백만원으로 나타나 원금 및 이자상환이 농가경제 운용의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 농가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농업수익성 제고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경우 부실로 인한 농가파산 등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저소득농가의 소득 실태

4.1. 농가소득원

- 저소득농가와 고소득농가의 평균 농가소득 비교 결과 저소득농가의 농가소득은 793만원으로 고소득농가의 12.8% 수준에 머물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가소득원 구성을 보면, 농업소득 의존도는 저소득농가는 14.0%로 소득원 중 가장 낮은 반면, 고소득농가는 48.0%로 가장 높아 저소득농가가 고소득농가에 비해 농업소득 의존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편 농외소득 의존도는 저소득농가가 고소득농가에 비해 16.0% 포인트 높고, 이전수입 의존도도 30.0%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농가일수록 노임이나 급료와 같은 사업외소득 의존도와 사적 및 공적 보조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농가의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 농가가 영농규모가 작고 고령화되어 있어서 농업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외소득과 이전수입 의존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 저소득농가의 가계비 규모는 고소득농가의 40.7%에 해당하는 1,57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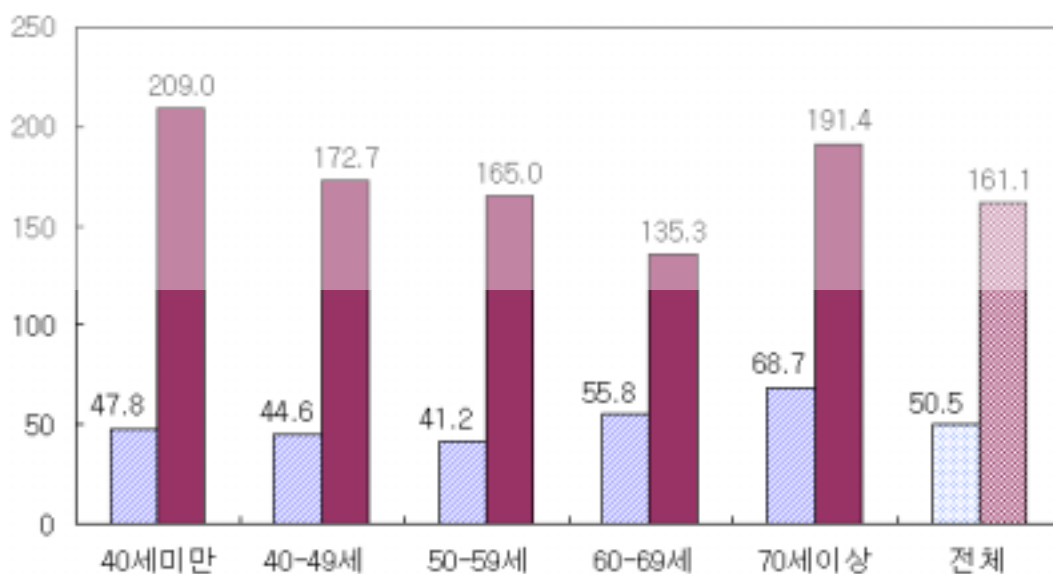
으로 소비지출의 절대규모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가소득으로 가계비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인 가계비충족도 분석결과 저소득농가는 50.5%로 농가소득이 가계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고소득농가는 161.1%로 61% 정도의 가계수지 잉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소득계층간 농가소득원 비교

단위 : 만원, %

	저소득농가(A)	고소득농가(B)	A-B
농가소득(A)	793(100.0)	6,214(100.0)	12.8
농업소득	111(14.0)	2,982(48.0)	-34.0
농외소득	330(41.6)	2,057(33.1)	8.5
이전수입	352(44.4)	1,175(18.9)	25.5
가 계 비(B)	1,570	3,856	40.7
가계비충족도(A/B)	50.5	161.1	-110.6

그림 3-2. 소득계층간 경영주연령별 가계비충족도 비교



- 경영주연령별 소득계층간 가계비충족도를 비교해 보면, 라이프 사이클에 의하여 교육비 등 소비지출이 큰 40~50대 농가의 가계비충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저소득농가의 농가소득 구성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가 특성별로는 경영주 연령이 고령화될수록 이전수입과 농업소득 의존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근로소득 등 농외소득 의존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저소득농가 중 경영주 연령이 낮고, 영농규모가 영세한 농가는 기본적으로 노동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농업의존도를 높일 수 있는 농업자산이 확보되지 못한 농가들이므로 이 농가들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농외소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경영주 연령이 낮고, 영농규모도 전업농 이상인 농가는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영농수지 적자를 기록하였거나 신규진입농가로 수익성이 나타나지 않은 농가들로 추정된다. 이 농가들은 기본적으로 농업의존도가 높으므로 과학적인 영농계획수립과 정확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서 시장경쟁력 제고를 통해 농업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수익성 있는 농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 경영주 연령이 고령화되어 있고, 영농규모도 작은 고령 영세소농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공적보조를 통해 기초생활이 보장되도록 유도하여 영농에서 은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고령농가 중 영농규모가 큰 농가들은 농업자산 규모는 크지만 수익성 창출과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경영이양 등을 통해 규모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표 3-9. 저소득농가의 소득원 구성비

단위 : %

		40세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전 체
1ha미만	농업소득	2.5	0.3	9.0	13.0	23.8	12.2
	농외소득	58.7	71.0	50.3	30.5	16.7	39.7
	이전수입	38.8	28.7	40.7	56.5	59.5	48.1
1~2ha	농업소득	1.4	12.8	21.0	30.0	26.9	20.9
	농외소득	58.3	55.8	53.5	28.3	21.5	41.5
	이전수입	40.3	31.4	25.5	41.7	51.6	37.6
2~3ha	농업소득	-21.8	36.9	-53.7	62.1	16.6	13.0
	농외소득	74.9	40.5	92.8	-1.6	24.5	46.4
	이전수입	46.9	22.6	60.9	39.4	58.9	40.6
3~5ha	농업소득	67.1	-0.4	37.8	2.2	38.4	12.7
	농외소득	0.0	34.6	26.8	19.2	20.8	28.5
	이전수입	32.9	65.8	35.5	78.6	40.9	58.9
5ha이상	농업소득	-156.1	-99.2	40.8	-20.8	36.6	-20.3
	농외소득	117.0	159.8	23.9	60.1	29.0	71.8
	이전수입	139.1	39.4	35.3	60.7	34.4	48.4

4.2. 이전수입 및 공적보조

- 최근에 농가소득에서 이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전수입 중 공적보조의 증가추이를 보면, 2000년에 농가당 205천원에서 소득보전 성격의 직접지불제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2003년에는 1,394천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공적보조는 농어민연금, 생활보조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의 기타공적보조와 농업관련 공적보조로 구분되며, 농업관련공적보조는 농업투자보조(농업정책자금 보조 등)와 기타농업보조(논농업직불제, 농약, 비료 보조 등)로 구분된다.
- 저소득농가의 농가소득 중 이전수입 비중은 44.4%로 고소득농가에 비해 이전수입 의존도가 25.5% 포인트 높으며, 특히 사적보조보다는 정부

에서 지원하는 공적보조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보조는 농업관련 공적보조와 사회보장적 성격의 기타공적보조로 구분되는데 저소득농가의 경우 농업관련 공적보조 비중은 36.9%로 고소득농가에 비해 20.9% 포인트 낮은 반면, 농어민연금, 생활보조금 등 기타공적보조 비중은 63.1%로 고소득농가에 비해 20.9%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저소득농가의 영농규모별 이전수입 구성을 보면, 공적보조 비중이 24.3%, 사적보조 비중이 75.7%로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사적보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적보조 내역을 보면, 1ha 미만의 영세농은 기타공적보조 비중이 83.3%로 가장 높았으며, 1~2ha 농가도 59.6%로 나타난 반면, 2ha 이상 농가는 전반적으로 농업관련공적보조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소득농가 중에서도 소규모 농가일수록 사회보장적 성격의 공적보조 의존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0. 소득계층간 이전수입 구성내역 비교

단위 : %

		저소득농가	고소득농가	A-B
농가소득		100.0	100.0	-
이전수입		44.4	18.9	25.5
사적보조		75.7	82.7	-7.0
공적보조		24.3	17.3	7.0
공 적 보 조	농업관련공적보조	36.9	57.8	-20.9
	농업투자보조금 ¹⁾	10.1	26.0	-15.9
	기타농업보조금 ²⁾	26.8	31.7	-4.9
	기타공적보조 ³⁾	63.1	42.2	20.9

주 1) 농업투자보조는 농업정책자금 보조 등

2) 기타농업보조는 논농업직불제, 농약, 비료 보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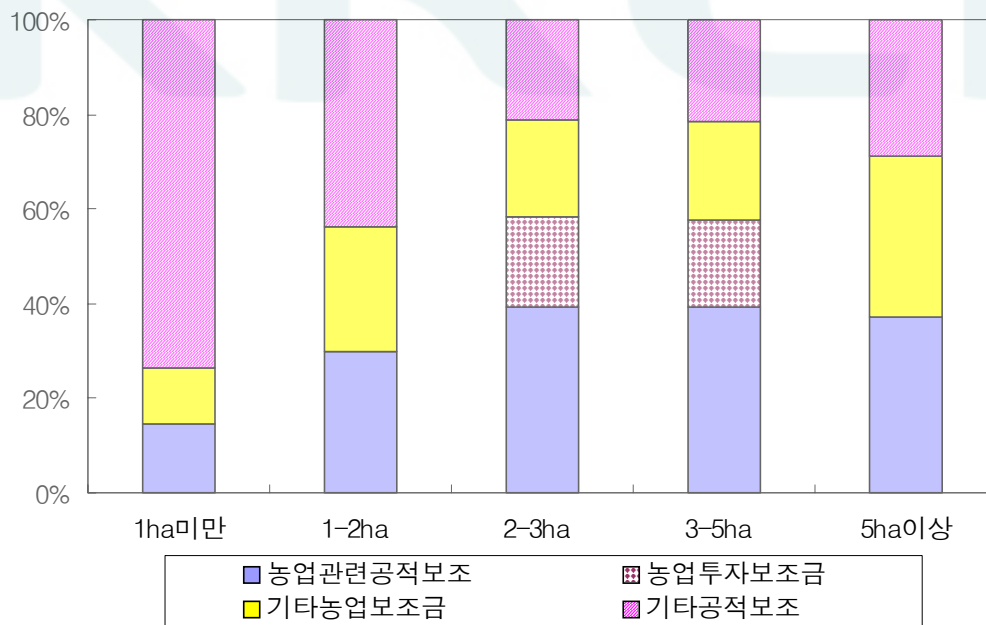
3) 기타공적보조금은 농어민연금, 생활보조금 등 사회보장적 보조

표 3-11. 저소득농가의 공적보조 내역

단위 : %

	1ha미만	1~2ha	2~3ha	3~5ha	5ha이상	전 체
이전수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적보조	75.6	77.9	72.5	75.8	69.2	75.7
공적보조	24.4	22.1	27.5	24.2	30.8	24.3
농업관련공적보조	16.7	40.4	65.0	64.5	56.1	36.9
농업투자보조금	3.5	4.7	31.1	30.6	4.5	10.1
기타농업보조금	13.3	35.7	33.9	33.9	51.6	26.8
기타공적보조	83.3	59.6	35.0	35.5	43.9	63.1

그림 3-3. 저소득농가의 영농규모별 공적보조 구성 내역



5. 저소득농가의 소비 실태

5.1. 가계수지

5.1.1. 전체 농가의 가계수지

- 농가소득이 가계비보다 적어 가계수지가 적자인 농가비중은 전체 농가 중 37.0%이며, 특히 저소득농가 중 81.6%가 가계수지 적자(절대빈곤층의 89.3%, 차상위계층의 66.9%)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저소득농가 중 농가소득은 1천만원 미만인 반면 가계비는 2천만원 이상 지출하는 농가 비중은 56.5%로 나타났으며, 1~2천만원 소득 농가 중 3

표 3-12. 농가의 가계수지 실태

단위 : %(농가수)

		적자농가	흑자농가	전 체
저소득 농 가	절대빈곤층	89.3	10.7	100.0(298)
	차상위계층	66.9	33.1	100.0(154)
차상위 초과		29.0	71.0	100.0(2,510)
전 체		37.0	63.0	100.0(2,962)

표 3-13. 저소득농가의 농가소득 대비 가계비 지출 실태

단위 : %(농가수)

		가 계 비					전 체
		1천미만	1~2천	2~3천	3~4천	4천 초과	
농가 소득	1천미만	43.4	36.4	12.5	5.0	2.6	100.0(343)
	1~2천	11.1	44.4	31.5	8.3	5.6	100.0(109)
전 체		35.6 (161)	38.3 (173)	17.0 (77)	5.8 (26)	3.3 (15)	100.0(452)

표 3-14. 농가소득 대비 가계비 지출 실태

단위 : %(농가수)

		가 계 비					전 체
		1천미만	1~2천	2~3천	3~4천	4천 초과	
농 가 소 득	1천미만	44.4	37.1	11.7	4.5	2.3	100.0(426)
	1~2천	18.1	57.8	16.5	5.1	2.5	100.0(843)
	2~3천	4.1	45.0	32.7	12.3	5.9	100.0(664)
	3~4천	1.9	27.0	37.2	22.0	11.9	100.0(419)
	4천초과	0.5	11.0	28.2	27.5	32.8	100.0(610)
전 체		12.8 (380)	37.9 (1,124)	24.8 (734)	13.6 (404)	10.8 (320)	100.0(2,962)

천만원 이상 가계비 지출 농가비중은 13.9%로 나타나 저소득농가의 가계수지 적자 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5.1.2. 저소득농가의 가계수지

- 소득계층간 농가소득의 가계비충족도 비교결과 저소득농가가 고소득농가에 비해 평균 110.6% 포인트 낮은 수준에 있으며, 영농규모가 클수록 그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비 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차이를 보이는 반면, 대규모 농가 중 고소득농가의 경우 수익성 있는 영농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저소득농가의 경우 영농

표 3-15. 소득계층간 가계비충족도 비교

단위 : %

	저소득농가(A)	고소득농가(B)	A-B
1ha미만	72.8	176.1	-103.3
1~2ha	68.2	186.0	-117.8
2~3ha	50.8	193.4	-142.6
3~5ha	52.1	191.0	-138.9
5ha이상	46.6	220.4	-173.8
전 체	50.5	161.1	-110.6

표 3-16. 저소득농가의 특성별 가계비충족도 실태

단위 : %

	40세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전 체
1ha미만	59.1	56.6	63.5	73.5	87.4	72.8
1~2ha	59.7	53.9	61.0	70.5	87.4	68.2
2~3ha	41.4	53.6	32.0	65.5	66.7	50.8
3~5ha	47.2	46.0	43.8	50.3	67.0	52.1
5ha이상	26.8	33.8	24.1	43.1	66.5	46.6

실패 등으로 농업수익성이 낮아 농가소득으로 가계비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저소득농가의 특성별 가계비충족도를 보면, 고령화된 소규모 농가일수록 가계비 충족도가 높고, 젊은 대규모 농가는 가계비 충족도는 평균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된 소규모 농가는 소득수준이 낮지만 소비지출 규모도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계비 압박정도가 낮지만 40~50대의 비교적 젊은 농가는 생애주기 상 교육비 등 소비지출규모는 큰 반면, 대규모농가의 경우 영농실패 등으로 농업소득 수준이 낮아 가계비 압박이 다른 농가에 비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2. 저소득농가의 소비실태

- 소득계층간 소비실태 분석결과 평균소비성향(가계비/가처분소득)은 저소득농가가 295.7로 가처분소득에 비해 가계비가 3배 정도 높아 저축 등 소득 중 일부를 농가에 유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반면, 고소득농가는 74.5로 가처분소득으로 가계비를 충당하고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가계비 중 식료품비 비중을 나타내는 엔겔계수는 저소득농가가 고소득농가에 비해 7.0%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비 충족도도 저소득농가는 농가소득으로 가계비의 절반 정도만 충당 가능하지만 고

소득농가는 농가소득이 가계비의 2.6배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저소득농가의 경영주 연령별 소비실태를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식료품비와 보건의료비의 비중이 높아 엔겔계수가 젊은 층에 비해 높은 반면, 40~50대는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연령층

표 3-17. 소득계층간 소비실태 비교

단위 : %

	저소득농가(A)	고소득농가(B)	A-B
소비지출	100.0	100.0	-
식료품비	26.7	20.6	6.1
보건의료비	7.5	5.3	2.2
교육비	10.0	12.8	-2.8
기타소비지출	55.8	61.3	-5.5
평균소비성향	295.7	74.5	221.2
엔겔계수	23.3	16.3	7.0
가계비충족도	50.5	161.1	-110.6

표 3-18. 저소득농가의 경영주 연령별 소비실태

단위 : 만원, %

	40세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전체
농가소득(A)	882	973	810	725	677	793
가처분소득(B)	714	657	400	527	472	531
가계비(C)	1,847	2,179	1,967	1,301	985	1,570
소비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비	26.1	24.9	24.1	27.9	33.2	26.7
보건의료비	6.8	4.8	5.8	10.3	12.2	7.5
교육비	8.0	17.3	13.9	2.5	0.6	10.0
기타소비지출	59.1	53.0	56.1	59.3	54.0	55.8
평균소비성향	258.5	331.9	491.4	246.7	208.6	295.9
엔겔계수	24.0	22.7	21.0	23.8	26.3	23.3
가계비충족도(A/C)	47.8	44.6	41.2	55.8	68.7	50.5

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젊은 영농층의 평균소비성향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아 소득 대비 소비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5.2.1. 의료비 실태

- 저소득농가의 소비지출 중 의료비 비중은 평균 7.5%이나 경영주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높아져 60대에는 10.3%, 70대에는 1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소득농가도 소비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령화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의료비 지출규모는 저소득농가(103만원)가 고소득농가(161만원)에 비해 56.3% 정도 낮지만 농가경제에 미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 보건의료비가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고소득농가는 2.6%에 불과하지만 저소득농가는 평균 13.0%로 보건의료비가 농가경제에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의 저소득농가의 경우 농가소득의 14~16%를 차지하는 반면, 고소득농가는 3% 수준에 불과하다.

표 3-19.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실태 분석

단위 : 만원(%)

		40세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전 체
저소득 농 가	농가소득(A)	882	973	810	725	677	793
	보건의료비(B)	116	96	100	115	95	103
	(의료비/소비지출)	(6.8)	(4.8)	(5.8)	(10.3)	(12.2)	(7.5)
	B/A	13.1	9.8	12.3	15.9	14.1	13.0
고소득 농 가	농가소득(A)	6,807	6,235	6,468	5,762	5,775	6,214
	보건의료비(B)	166	142	149	194	183	161
	(의료비/소비지출)	(5.8)	(4.4)	(4.7)	(6.9)	(8.0)	(5.3)
	B/A	2.4	2.3	2.3	3.4	3.2	2.6

5.2.2. 교육비 실태

- 저소득농가 중 취학자녀를 보유한 139농가의 소비지출 구조를 분석한 결과, 교육비 지출 비중은 17.0%로 전체 농가 평균에 비해 7% 포인트 높으며, 40~50대 농가의 소비지출 중 18~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비가 농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가소득으로 교육비 감당 정도를 분석한 결과 40대는 농가소득의 38.7%, 50대는 42.7%가 교육비 지출 비중으로 나타나 저소득농가의 소득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각종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40대는 56.8%, 50대는 77.6%를 교육비가 차지하고 있어서 소비성 농가 부채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

표 3-20. 취학자녀 보유 저소득농가의 소비실태

	40세미만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전 체
농가소득(A)	934	1,003	912	1,183	989
가처분소득(B)	748	684	502	918	654
가 계 비(C)	2,110	2,310	2,181	1,854	2,231
소비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교 육 비	9.9	18.4	20.1	10.0	17.0
평균소비성향(C/B)	282.3	337.6	434.1	202.0	341.3
가계비충족도(A/C)	44.3	43.4	41.8	63.8	44.3
교육비/농가소득	20.5	38.7	42.7	13.6	34.3
교육비/가처분소득	25.6	56.8	77.6	17.6	51.9

6. 저소득농가의 농가부채 실태

6.1. 농가부채 현황

- 소득계층간 농가부채 규모별 농가분포를 보면, 저소득농가는 부채가 없거나 1천만원 미만의 소액부채 농가 비중이 5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고소득농가는 부채가 없거나 소액부채 농가비중이 30.2%로 나타났다. 한편 5천만원 이상 고액부채 농가 비중은 저소득농가는 16.3%인 반면 고소득농가는 33.8%를 차지하고 있어서 고소득농가일수록 부채규모가 큰 농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저소득농가는 고소득농가에 비해 고액부채 농가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수익성이 낮은 현재의 농가경제 실태를 고려하면 저소득농가 중 5천만원 이상 고액부채를 갖고 있는 16.3%의 농가에게는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21. 소득계층간 부채 규모별 농가분포

단위 : %(농가수)

	저소득농가(A)	고소득농가(B)	A-B
없 음	31.4	12.8	18.6
1천만원 미만	25.7	17.4	8.3
1~3천만원	18.1	24.2	-6.1
3~5천만원	8.4	11.7	-3.3
5천~1억원	9.7	17.4	-7.7
1억원 이상	6.6	16.4	-9.8
전 체	100.0 (452)	100.0 (609)	-

표 3-22. 저소득농가의 영농규모 및 부채규모별 농가 분포

단위 : %(농가수)

	1ha미만	1~2ha	2~3ha	3~5ha	5ha이상	전 체
없 음	41.3	28.1	21.7	9.4	24.0	31.4(142)
1천미만	27.0	26.3	23.9	18.8	24.0	25.7(116)
1~3천	19.0	21.3	8.7	21.9	4.0	18.1(82)
3~5천	5.3	9.4	13.0	12.5	12.0	8.4(38)
5천~1억	5.8	7.5	19.6	21.9	20.0	9.7(44)
1억이상	1.6	7.5	13.0	15.6	16.0	6.6(30)
전 체	100.0 (189)	100.0 (160)	100.0 (46)	100.0 (32)	100.0 (25)	100.0(452)

- 저소득농가의 영농규모별 부채현황을 보면, 2ha 미만인 농가는 부채가 없거나 1천만원 미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3ha 이상 농가는 5천만원 이상 고액부채 농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2. 농가부채 상환능력

- 농가부채의 상환능력 분석을 위하여 아래 식과 같은 자산부채비율 지표를 적용하였다. 자산부채비율이 40% 이상이면 위험농가, 70% 이상이면 부실농가로 평가할 수 있다.

$$\text{자산부채비율} = \frac{\text{농가부채}}{\text{농가자산}} \times 100$$

- 소득계층간 부채상환능력 기준 농가분포를 비교해 보면, 자산부채비율이 40% 미만으로 부채상환능력이 양호한 농가비중은 저소득농가는 81.8%, 고소득농가는 85.6%로 고소득농가의 비중이 3.8%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0~70%로 위험수준의 농가 비중은 고소득농가가 2.0% 포인트 높은 반면, 70% 이상으로 부실수준의 농가 비중은 저소득농가가 9.3%로 고소득농가에 비해 5.8% 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농가 중 10%에 가까운 농가가 부실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저소득농가의 부채규모 및 상환능력별 농가분포를 보면, 부채규모가 3천만원 미만의 소액부채농가의 경우 자산부채비율이 30% 미만의 양호한 농가비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재무구조가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천~1억원의 고액부채 농가 중 54.6%가 위험과 부실수준으로 나타났으며, 1억원 이상 농가 중 90%가 역시 위험 및 부실수준으로 나타나 저소득농가 중 고액부채 농가의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23. 소득계층간 부채상환능력 비교

단위 : %(농가수)

	저소득농가(A)	고소득농가(B)	A-B
0~10%	57.7	48.8	8.9
10~30%	19.5	29.9	-10.5
30~40%	4.6	6.9	-2.3
40~70%	8.8	10.9	-2.0
70% 이상	9.3	3.5	5.8
전 체	100.0 (452)	100.0 (608)	-

표 3-24. 저소득농가의 부채규모 및 상환능력별 농가분포

단위 : %(농가수)

	부채없음	1천미만	1~3천	3~5천	5천~1억	1억 이상	평 균
0~10%	100.0	87.1	15.9	10.5	2.3	0.0	57.7
10~30%	0.0	11.2	61.0	39.5	18.2	6.7	19.5
30~40%	0.0	0.0	6.1	10.5	25.0	3.3	4.6
40~70%	0.0	1.7	8.5	18.4	27.3	40.0	8.8
70% 이상	0.0	0.0	8.5	21.1	27.3	50.0	9.3
전 체	100.0 (142)	100.0 (116)	100.0 (82)	100.0 (38)	100.0 (44)	100.0 (30)	100.0 (425)



KREI

- 부채는 농가경제 불안정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농가가 성장하는 바탕이 되기도 한다. 부채가 많은 농가일수록 소득변동의 폭이 크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득이 크게 증가한 농가도 많다. 부채가 없는 것 보다는 부채를 잘 활용하면 농가경제 성장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농가부채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농가소득 변동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부채관리가 중요한 과제이다. 외부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을 40%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농산물수입개방이 더욱 확대되고 농가판매가격도 정체되어 농업생산의 수익성이 정체될 전망이다. 이러한 외부충격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부채관리가 중요한 과제이다. 농가가 경영규모 확대를 위해 부채를 확대하기 보다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을 40% 이하로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 4 장

저소득층 유지 농가의 농가경제 실태

1. 농가의 소득계층간 이동 실태

- 농가경제 조사는 5년마다 조사대상 표본농가를 교체하는데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동일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동일한 농가에 대하여 5년간의 농가경제 변동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에 거주이전 및 탈농 등으로 인해 표본이 누락되거나 교체되는 농가가 발생하므로 전적으로 동일한 농가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전체 조사대상 3,040호 중에서 조사기간 중에 교체되거나 조사에서 누락된 농가를 제외한 2,348호의 농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농가소득 수준의 이동 실태 파악을 위하여 이행행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행행렬을 통해 특정 농가의 소득분포 위치가 기준연도와 비교연도 사이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준연도와 비교연도의 소득 5분위 분석을 통한 상대적 소득수준의 이행행렬 분석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저소득농가의 이행행

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 1998년의 특정 분위의 농가가 2002년에는 어느 분위로 이동하였는가를 분석한 결과 1998년에 최하위 소득계층인 I 분위에 속해 있던 농가 중에서 45.2%는 같은 분위에 잔류해 있고, 54.8%는 상위 소득계층으로 이동했다. 반면 최상위 계층인 V 분위에 속해 있던 농가 중에서는 44.8%가 같은 분위에 잔류한 반면, 55.2%는 하위 소득계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간계층에 속하는 III 분위에 속한 농가 중에서는 27.2%만이 같은 소득계층에 잔류하였고, 36.9%는 상위 소득계층으로, 35.9%는 하위 소득계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소득 5분위 이행행열(1998, 2002)

단위 : 명, %

2002 \ 1998	I	II	III	IV	V	전체	하방 이동	수평 잔류	상방 이동
I	194	114	59	39	23	429	0.0	45.2	54.8
II	110	137	107	82	40	476	23.1	28.8	48.1
III	61	108	128	105	69	471	35.9	27.2	36.9
IV	39	76	101	144	119	479	45.1	30.1	24.8
V	32	44	83	113	221	493	55.2	44.8	0.0
전체	436	479	478	483	472	2,348	32.7	35.1	32.2

표 4-2. 최저생계비 기준 이행행열(1998, 2002)

단위 : 농가구, %

2002 \ 1998	절대빈곤층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	전체	하방 이동	수평 잔류	상방 이동
절대빈곤층	92	25	181	298	0.0	30.9	69.1
차상위계층	38	14	124	176	21.6	8.0	70.5
차상위초과	139	74	1,661	1,874	11.4	88.6	0.0
전체	269	113	1,966	2,348	10.7	75.3	14.1

표 4-3. 반복빈곤 경험농가 분포(1998, 2002)

단위 : 농가수, %

	빈곤경험 회 수	빈곤경험 농 가 수	비 중
비 빈 곤	0	1,389	59.2
빈곤경험	1	439	18.7
	2	217	9.2
	3	168	7.2
장기빈곤	4	81	3.4
항상빈곤	5	54	2.3
전 체		2,348	100.0

- 최저생계비 기준 저소득농가의 이행행렬 분석결과 1998년에 절대빈곤층에 속해 있던 농가 중 30.9%는 잔류해 있으며, 69.1%는 차상위계층 혹은 차상위계층 이상의 양호한 소득계층으로 상방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차상위계층 이상의 양호한 소득계층 중 88.6%는 잔류한 반면, 11.4%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절대빈곤층이나 차상위계층 등 하위 소득계층으로 하방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동일농가의 빈곤에 대한 경험 빈도수 분석 결과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을 경험한 농가 비중은 전체의 40.8%에 이르며, 이 중에서 3회 이상 장기빈곤을 경험한 농가 비중은 12.9%로 나타났다. 또한 5년 연속 빈곤상태에 머무른 항상빈곤 상태의 농가는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장기빈곤 경험 농가의 특성

- 5년 연속 빈곤을 경험한 항상빈곤 상태의 농가의 특징을 보면 1ha 미만의 영세소농이 75.9%, 2ha 미만으로 확대하면 90.7%로 절대다수를 차지

표 4-4. 항상빈곤 농가의 경영주 연령 및 영농형태

단위 : %(농가수)

	40세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전 체
1ha미만	0.0	14.8	1.9	14.8	44.4	75.9(41)
1~2ha	0.0	7.4	1.9	5.6	0.0	14.8(8)
2~3ha	0.0	1.9	0.0	0.0	0.0	1.9(1)
3~5ha	1.9	0.0	1.9	1.9	0.0	5.6(3)
5ha이상	1.9	0.0	0.0	0.0	0.0	1.9(1)
전 체	3.7(2)	24.1(13)	5.6(3)	22.2(12)	44.4(24)	100.0(54)

표 4-5. 장기빈곤 경험농가의 경영주 연령 및 영농형태

단위 : %(농가수)

	40세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전 체
1ha미만	1.5	14.1	2.2	16.3	32.6	66.7 (90)
1~2ha	3.0	7.4	4.4	3.7	0.7	19.3 (26)
2~3ha	0.0	3.7	1.5	0.7	0.0	5.9 (8)
3~5ha	1.5	0.7	0.7	0.7	0.0	3.7 (5)
5ha이상	1.5	1.5	1.5	0.0	0.0	4.4 (6)
전 체	7.4 (10)	27.4 (37)	10.4 (14)	21.5 (29)	33.3 (45)	100.0(135)

하며,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 농가 비중이 64.8%인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된 소규모 영세농이 대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4회 이상 빈곤을 경험한 장기빈곤 경험 농가는 전체의 5.7%를 차지하며, 이 농가의 특성 역시 2ha 이하의 소규모의 영세소농이며, 60세 이상의 고령 농가가 8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장기빈곤 경험 농가의 농가경제 실태

- 4회 이상 장기빈곤 경험농가의 2002년도 농가경제 실태 분석결과 농업

소득보다는 농외소득과 이전수입 의존 비중이 높고, 농가소득의 가계비 총당 정도는 55.5%로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영주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하의 비교적 젊은 농가일수록 근로소득 및 겸업소득과 같은 농외소득 의존 비중이 높으며, 70세 이상의 고령농가는 이전수입 의존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가부채 규모의 경우 평균 3천 1백만원 수준이지만 40세 미만의 젊은 농가에서는 1억 2백만원의 고액부채 농가로 나타나 장기빈곤과 고액부채 부담의 이중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농규모별로 보면 1ha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농외소득 의존비중이 높지만 1~2ha 농가는 다른 영농규모의 농가에 비해 농업소득 의존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규모 농가 중에서도 1ha 미만의 영세농가는 농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등 농외소득 위주의 소득을 얻고 있지만 1~2ha 농가는 고령화된 영세농가로 농외소득보다는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3ha를 초과하는 대규모 농가는 농가소득이 (-)로 농가수지가 적자이거나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기간 투자나 영농실패로 인해 정상적인 수익성을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4-6. 장기빈곤 경험농가의 경영주 연령별 농가경제 실태

		40세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전 체
농가소득(만원)		887	692	616	758	523	654
소득원 구성비	농업소득	24.4	18.3	16.5	35.2	25.9	24.6
	농외소득	46.4	60.0	53.3	37.3	18.2	41.1
	이전수입	29.3	21.7	30.2	27.5	55.9	34.3
가계비총당지수		51.0	41.9	39.4	83.8	73.7	55.5
농가부채(만원)		10,225	3,713	4,943	3,054	337	3,089

표 4-7. 장기빈곤 경험농가의 영농규모별 농가경제 실태

		1ha미만	1~2ha	2~3ha	3~5ha	5ha이상	전 체
농가소득(만원)		647	803	394	800	211	654
소득원 구성비	농업소득	22.5	47.5	13.1	-50.7	21.2	24.6
	농외소득	40.3	28.1	38.4	117.0	34.9	41.1
	이전수입	37.2	24.4	48.6	33.7	43.9	34.3
가계비충당지수		72.9	50.3	25.1	42.6	8.4	55.5
농가부채(만원)		1,310	3,593	1,482	23,418	9,662	3,089

제 5 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 이 연구는 농가경제 표본농가 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소득 분포 변화를 분석하고, 저소득농가와 고소득농가를 정의한 후 그 특성과 농가경제실태를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 자료는 통계청의 농가경제 표본농가 조사 원시자료(1998~2003) 중 저소득농가와 고소득농가의 소득 및 소비실태 비교·분석은 2003년 자료, 5개년 간 동일 표본농가(2,348)의 소득계층 이행실태, 장기빈곤 경험농가의 농가 특성 및 농가경제 현황을 분석은 1998~2002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 농가 소득격차의 변화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엔트로피지수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00년 이후에 농가 간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소득 5분위배율도 2003년에 12.3으로 크게 높아져 농가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농가 빈곤율도 2003년에 12.4%로 최근에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저소득농가의 특성은 경영주 연령 측면에서는 50대 이하의 비교적 젊은 영농층 비중은 고소득농가에 비해 낮은 반면, 고령농가비중이 높으며, 영농규모 측면에서도 저소득층은 1ha 미만의 영세 소농 비중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형태별로는 미작과 채소농가 비중이 고소득농가에 비해 높은 반면, 부가가치가 높은 과일과 축산농가 비중은 낮다.
- 저소득농가의 소득실태를 보면, 평균 농가소득수준은 고소득농가의 12.8%에 머물러 크게 낮은 수준이며, 농업소득 의존도가 가장 낮고, 농외소득 및 이전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소득농가는 농업소득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비를 이루고 있다. 저소득농가의 가계비충족도는 50.5%로 농가소득이 가계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인 반면, 고소득농가는 161.1%로 61.1%의 가계수지 잉여가 발생하고 있다.
- 저소득농가의 소비실태를 보면, 평균소비성향이 295.7로 가계비가 가처분소득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엔겔계수가 높아 생활수준이 낮고, 소비지출 중 의료비 비중이 높으며, 교육비 부담능력도 낮아 소비성 농가부채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
- 저소득농가의 부채규모 및 상환능력별 농가분포를 보면, 수익성 창출 부족으로 농가소득이 낮음에도 부채규모는 5천~1억원인 대규모 부채 농가 중 54.6%가 위험과 부실수준으로 나타났으며, 1억원 이상 농가 중 90%가 역시 위험 및 부실수준으로 나타나 저소득농가 중 고액부채 농가의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장기빈곤 경험농가에 대한 분석결과 4회 이상 빈곤을 경험한 농가는 전체의 5.7%를 차지하며, 이 농가의 특징 역시 2ha 이하의 소규모의 영

세소농이며, 60세 이상의 고령 농가가 8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빈곤 경험농가의 2002년도 농가경제 실태 분석결과 농업소득보다는 농외소득과 이전수입 의존 비중이 높고, 농가소득의 가계비 총당 정도는 55.5%로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농가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2. 시사점

- 농산물 수입개방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도 전업화와 규모화 등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농가 간 소득격차의 확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 안정화 문제는 앞으로 농업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이다.
-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 실태 파악 및 안정화를 위한 기본방향 관련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저소득농가에 대한 정의와 특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농가소득에 대한 접근은 평균적으로 도시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으며, 농가 간 소득계층을 구분하여 그 특성과 농가경제 실태를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 둘째, 농가의 특성 및 소득수준에 따라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이 차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경영주의 연령과 영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젊고 영세한 농가는 농외소득 중심, 젊고 대규모인 농가는 농업소득 창출을 위한 경영지도 및 정보제공, 고령화되고

영세한 농가는 사회보장적 접근을 통한 은퇴 유도, 고령화되고 대규모 농가는 경영이양 지원을 통한 은퇴 유도 등 농가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 셋째, 저소득농가의 농가부채 관리를 위한 경영지도와 자산구조조정 등 제도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저소득농가의 농가부채 실태 분석결과 고액부채농가의 대부분이 위험 및 부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부채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농가소득 변동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부채관리는 중요한 과제이다. 외부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을 40%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농산물수입개방이 더욱 확대되고 농가판매가격도 정체되어 농업생산의 수익성이 정체될 전망이다. 이러한 외부충격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부채관리가 중요한 과제이다. 농가가 경영규모 확대를 위해 부채를 확대하기 보다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을 40% 이하로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농지유동화 등 농가자산의 조정을 통해 농가부채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신속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성용, 이계임(2002), 「농가의 소비지출구조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준기, 문한필, 김용택(2004),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요인분해”, 「농촌경제」 제27권 4호, pp.15~2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준기, 문한필(2005),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농업전망 2005」, pp.347~37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찬용, 김진욱, 김태완(1999),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수준 및 소득불평등 변화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경준, 김대일(2002),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변화와 재분배정책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유경준, 심상달(2004),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이우성(2000), “자산소유 편중과 소득불평등 심화”, 「주간경제」 제594호, pp.4~7, LG경제연구원
- 이정우, 황성현(1998), “한국의 분배문제-현황, 문제점과 정책방향”, 「KDI 정책연구」 제20집 제1-2호, pp.153~230
- 정광수(2000), 「한국 도시근로자가구에 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정진호, 최강식(2001), “근로자 가구소득 불평등의 요인별 분해”, 「경제학연구」 제49집 제3호, pp.39~64, 한국경제학회
- 정진호, 황덕순, 이병희, 최강식(200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현진권, 강석훈(1998), “한국 소득분배의 국제비교”, 「경제학연구」 제46집 제3호, pp.145~164, 한국경제학회
- 황의식, 문한필(2003), 「농가경제 불안정 실태와 요인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황의식, 박준기(2003),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농업전망 2002」, pp.65~9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Jenkins, S.P.(1995), “Accounting for Inequality Trends: Decomposition Analyses for the UK, 1971~1986”, *Economica*, Vol.62, pp.29~63
- Shorrocks, A.F.(1982), “Inequality Decomposition by Factor Components”, *Econometrica*, Vol.50-1, pp.193~211



정책연구보고 P76

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 실태 분석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5. 4.

발 행 2005. 4.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 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59-6110 <http://www.krei.re.kr>

인 쇄 경희정보인쇄(주) 02-2263-7534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